

투데이 칼럼

행복의 길

사람들은 성공,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어수선한 시기에 내만이 아닌 공존체를 위해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우·행·시"란 말이 있다. 우·행·시란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몇해 전 나온 어느 유명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견배사 구호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그 소설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간결한 세 글자가 주는 뉘앙스가 좋고, '육십세대'라 그런지 여딘가 젊은이들이 씩씩한 말이라 좋다. 아 니 그보다 더 좋은 건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내만의 행복을 말하는 나·행·시가 아니고 우·행·시라서 더욱 좋다.

삼리만상을 망라하고 모든 인간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새 봄과 함께 국가나 사회적 이나, 나 개인에게도 어렵고 지루한

날이 지나고 새 힘이 솟는 날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위에 놓으시고 벌판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젊은 학생시절 시인이 되어 읊조리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작금의 현실에서 위대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여름의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 제 할 일을 다 하고자 죽자 살자 울어대다가 목숨을 다함의 위대한 일이고, 조그마한 트럭에 수박을 가득 싣고 달고 시원한 수박이라고 고래고래 외치던 수박장수의 힘든 일상이 위대하고, 자그마한 식단을 운영하여 장학금을 내놓는 삶이 위대함이다.

거창한 구호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그마한 목소리에 겸손하게 제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어디 그뿐인가. 그다지 힘 안 들이 고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밝고 긍정적이란 뜻이다.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 아니겠는가!

유대인의 격언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란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부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의 향수가 떨어진다든 의미다.

우리가 남에게 유익한 일을 도모하며 열심히 일할 때 몸은 피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뿌듯하며 표현하기 힘든 행복감이 물러온다. 그래서 헬렌켈러는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시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김양욱 한국스피치 리더십면접컨설팅 대표

사설

전북 방문의 해 동남아까지 시선 넓혀야

전북 방문의 해를 발표하지 이제 일주일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금의 사정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정립해두고 있어야 한다.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시너지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것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산업의 내실을 위해 변모시켜야 할 것은 반드시 변모시켜야겠다. 그제 없거나 부족하다면 대규모 관광객 유치도 관광산업의 시너지 창출도 버거운 목표가 될 터이다.

지난해 본보가 전주 한옥마을에 좋은 시절이 갔다는 사실로 주의를 환기시켰거니와 그 어떤 변화는 중요한 주문이다.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면 신경써야 할 곳에 신경을 써야한다. 저번에 문광부가 국민 여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심상하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걸보기의 관광객 숫자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개인여행지로서나 국민여행지로서나 만족도가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다. 하지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은 못 되고 있다.

이것은 관광 사업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걸보기 평가는 우수한테 경제적 실익은 별로이니 말이다. 다시 찾고 싶은 지역도 아니고 추천하고 싶은 지역도 아니라는 지적은 뼈아픈 것이다. 전북도와 관광사업 관계자들은 분석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말이 난감에 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성과를 보여야겠다. 예전같으면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법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드 배치 쟁점 때문에 중국 관광객 유치가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의 영역을 동남아까지 넓혀야겠다. 이 의견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북도의 브레인들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궁구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북 방문의 해 관광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 실현을 위해서 정방위로 힘써야 한다. 전북도는 올해 발상의 전환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전북도는 도민의 시선을 느껴야

전북도는 도민의 시선을 느껴야 한다. 그것도 강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현안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한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매년 같은 말만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북도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현재 유명무실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채된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국책 사업인 새만금사업마저 그러니 다른 사업들이야 오죽하랴. 그러나 도민의 뜻과는 맞지않는 정책의 귀 시끄러운 소리가 이따금씩 나오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라면 새만금 사업의 최종 목표인 '아리울'은 현재 살아 있는 세대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들 세대가 주역이 되는 20년 후에도 아마 어려울 것이다. 손자 세대가 주역이 되는 때쯤에서나 가능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이다. 언젠가도 지적했거니와 전주의 탄소클러스터 사업과 익산

의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추진하는 모양새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못 마땅해 할 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지적이 아주 틀린 게 아님분명하다.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거북이 움직인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날 모습은 삼사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것이 별로이다.

전북도는 현안사업의 힘찬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한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전북도는 매진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의 브레인들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재언

갑(甲)질 횡포, 사람위에 사람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백화점 고객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건, 공직이건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으며, 익숙해진 약자들이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뉴스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갑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곳의 심리상담센터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온 사방에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은 사회적 공존을 파괴하는 해악이다.

각자의 사회적 위상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절실하나 개인의 자질만으로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는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갑질문화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갑질 횡포로 인한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사회 조직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갑질문화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능동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원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순경

독자재언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 조심하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봄이 다가왔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면서 운전자에게는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춘곤증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운전자가 약 3초정도 깜박 졸게 되는 경우, 60km/h인 차량은 약 50m를, 100km/h인 경우는 약 100m를 운전자가 눈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졸음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의 위험도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4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치사율은 7.5배나 높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안의 실

내온도를 21~23도로 유지하고, 차 안은 밀폐공간이므로 틀림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한다.

그리고 잠시간 운전시 졸음이면 무리해서 운전하지 않고,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10분 정도 잠을 청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통승차가 있다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가벼운 대화를 유도하거나 장시간 운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스스로 예방만이 답이며, 졸음운전하는 차량을 발견시 앞뒤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린다는 지 라이트를 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

김윤철 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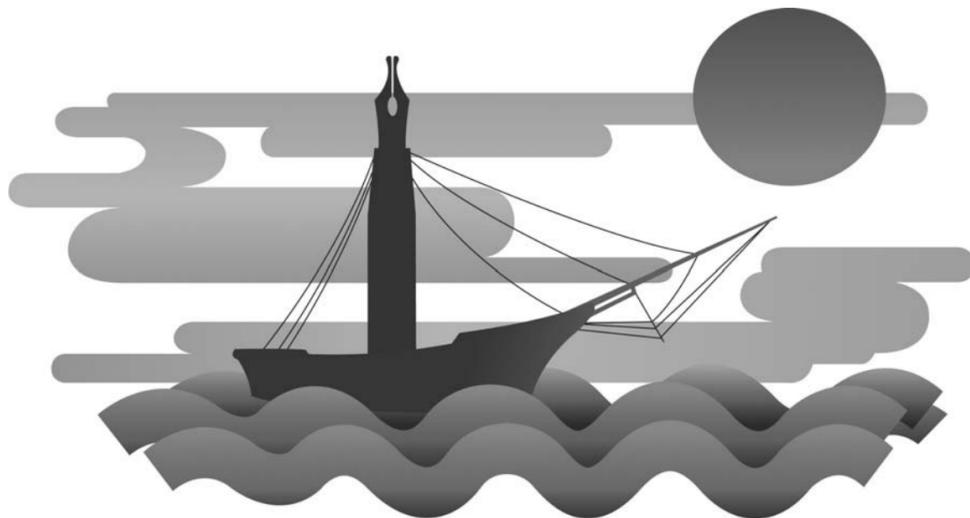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